

# 수입농식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 의식동향

1. 조사배경
2. 조사개요
3. 조사결과
4. 결 론



## 1. 조사배경

- 최근 일본은 호주와의 EPA교섭<sup>1)</sup>이 합의되면서 수입식품 증가로 인한 일본식품에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지산지소(地產地消)와 안전성 면에서 일본식품에 높은 관심을 가진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격 및 안전성, 품질 등이 다른 일본식품과 수입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양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소비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일본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식품을 구입할 때의 소비자의 의식과 실제의 소비행동분석을 통한 한국식품의 수출전략 수립과 시장진출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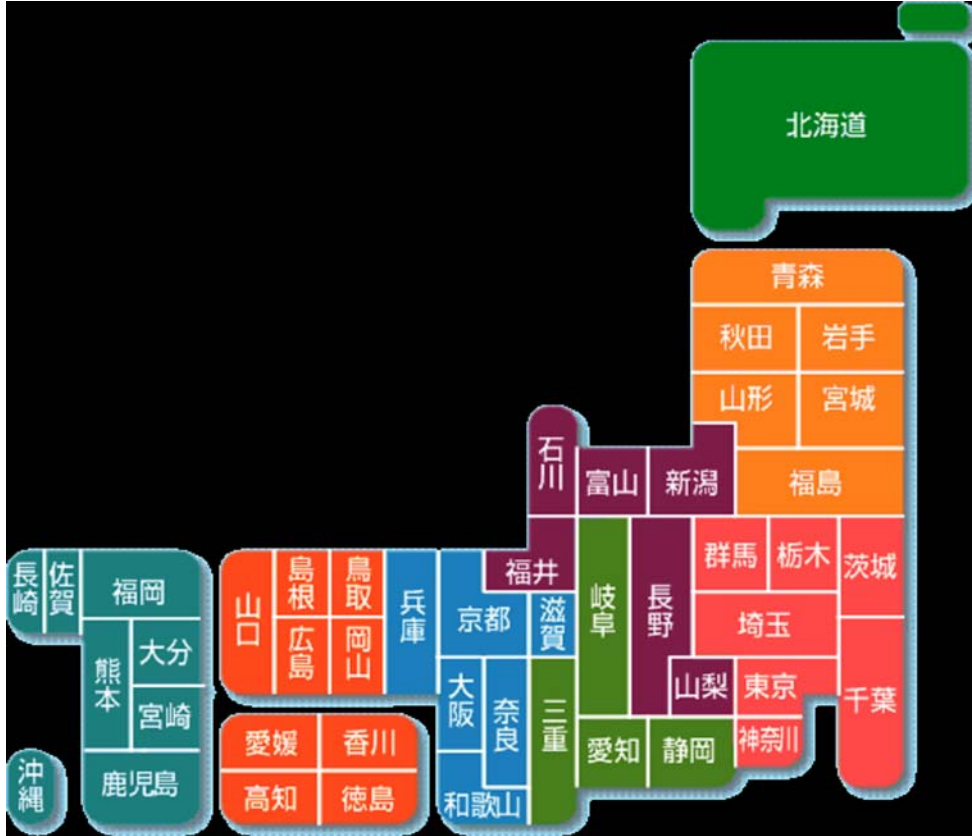
## 2. 조사개요

《조사요령》

1. 조사시기 : 2007년 2월
2. 조사대상 : 일본 전국의 20~60대의 전업주부 약 2,000명
3. 조사기관 : 농림어업금융공고
4.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5. 조사처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

지역별		연대구성별				
지역별	조사처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홋카이도	1	0	0	0	0	0
아오모리현	1	0	0	0	0	0
이바라키현	1	0	0	0	0	0
후쿠시마현	1	0	0	0	0	0
미야기현	1	0	0	0	0	0
니가타현	1	0	0	0	0	0
후쿠에현	1	0	0	0	0	0
시즈오카현	1	0	0	0	0	0
치바현	1	0	0	0	0	0
도쿄도	1	0	0	0	0	0
니시노가타현	1	0	0	0	0	0
가나가와현	1	0	0	0	0	0
사이타마현	1	0	0	0	0	0
지바현	1	0	0	0	0	0
후쿠치노미야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야마구치현	1	0	0	0	0	0
에히메현	1	0	0	0	0	0
고치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현	1	0	0	0	0	0
돗토리현	1	0	0	0	0	0
시마네현	1	0	0	0	0	0
오카야마현	1	0	0	0	0	0
히로시마						

《일본의 지역구분》



홋카이도 : 홋카이도

동북지방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관동지방 :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도, 가나가와, 야마나시

중부지방 : 니이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야마나시, 나가노, 기후,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

긴키지방 : 미에, 시가,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 나라, 와카야마

쥬고쿠지방 : 돗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코쿠지방 : 도쿠시마, 가가와, 에히메, 고치

큐슈지방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 3. 조사결과

- 식품에 대한 성향
- 식료품 구입시 일본산·수입산에 대한 의식
- 일본식품·수입식품에 대한 이미지
  - 일본식품에 대한 이미지
  - 수입식품에 대한 이미지
- 식품 구입현황
  - 최근 1년의 일본산·수입산의 구입상황
  - 수입식품을 구입한 이유
- 일본식품 구입상황
- 일본산 프리미엄이 높은 품목·낮은 품목
- 일본식품 구입의욕의 높기와 실제 소비행동과의 차이가 큰 품목
- 종 합
- 현지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 의견

## 일본식품과 수입식품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결과요약

- 대다수의 일본 주부는 식품을 구입할 때 그것이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신경을 쓰고 있음
- 호주산 식품의 이미지는 《싸고》 《안전》
- 일본산 프리미엄이 높은 품목은 《소고기》 《닭고기》 《표고버섯》 《돼지고기》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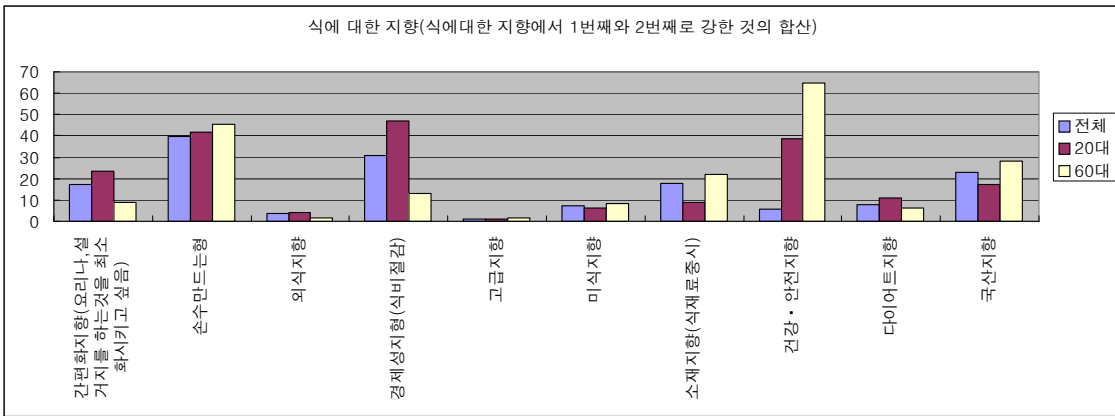
- 86%의 주부가 식품을 구입할 때에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그 경향은 고연령 층에서 강함.
  - 식품을 구입할 때에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신경을 쓴다□□에서 주부는 85.9%
  - 연령층별로 보면, 경제성지향의 강약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됨.
- 북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식품 이미지는 《싸나》 《안전면에 문제》 . 오세아니아는 《싸고》 《안전》 . EU는 《비싸나》 《맛있으며》 《안전》 .
  - BSE(광우병)의 영향이 짙게 남아있는 북미는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56.4%로 1위이며, 잔류농약문제가 발생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도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1위임. 한편으로 오세아니아(호주 등)는 □□안전□□(36.3%)하며, 가격에 대해서도 □□싸다□□(63%)는 이미지. E는 □□비싸다□□가 1위, 기타 이미지로 □□맛있다□□□□안전□□등임
- 일본산 프리미엄이 높은 품목은 《소고기》 《닭고기》 《표고버섯》 《돼지고기》로 나타났으며, 프리미엄이 낮은 품목은 《과실》 《호박》 《생선토막》 《양파》 《브로콜리》임
  - □□30% 이상 비싸도 일본산을 고른다□□라는 회답비율이 높은 품목을 일본산 프리미엄(일본산과 수입산의 가격차를 메우는 품질의 차)이 높은 품목으로 한 경우, 가장 프리미엄이 높았던 것은 소고기(21.4%)이며, 다음으로 닭고기(19.5%), 표고버섯(19.0%), 돼지고기(18.5%)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으로 □□일본산에 집착이 없다□□라는 회답비율이 높은 품목을 일본산프리미엄이 낮은 품목으로 한 경우, 가장 프리미엄이 낮았던 것은 과실(18.5%), 다음으로 호박(14.6%), 생선토막(14.0%), 양파(11.5%), 브로콜리(11.4%) 순으로 나타났음.
- 일본산의 구입의식의 높기와 실제의 소비행동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과실》 《생선토막》 .
  - □□30% 이상 비싸도 일본산을 고른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도 구입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과실이 58.6%이며, 다음으로 생선토막(47.2%)이었음.

□ 식품에 대한 성향

- 식품에 대한 성향으로 가장 강한 것은 《건강·안전지향》
- 저연령 층은 《경제성 지향》이 가장 강하고 60대에서는 《건강·안전지향》이 강함

- 식품에 대한 성향이 가장 강한 것은 「건강·안전지향」에서 50.7%, 다음으로 「손수만드는 형 지향」39.8%, 「경제성 지향(식비를 절약하고 싶다)」30.9%를 나타냈음.
- 연대별로 보면, 「건강·안전지향」은 20대에서 60대로 이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한편, 「경제성 지향」은 20대에서 60대로 이행됨에 따라 감소경향이 있어 20대에서는 「경제성 지향」이 「건강·안전지향」을 상회하고 있음.

- 식품에 대한 성향(1번째로 강한 것과 2번째로 강한 것의 합계비율)



- 식품에 대한 성향(1번째로 강한 것과 2번째로 강한 것의 합계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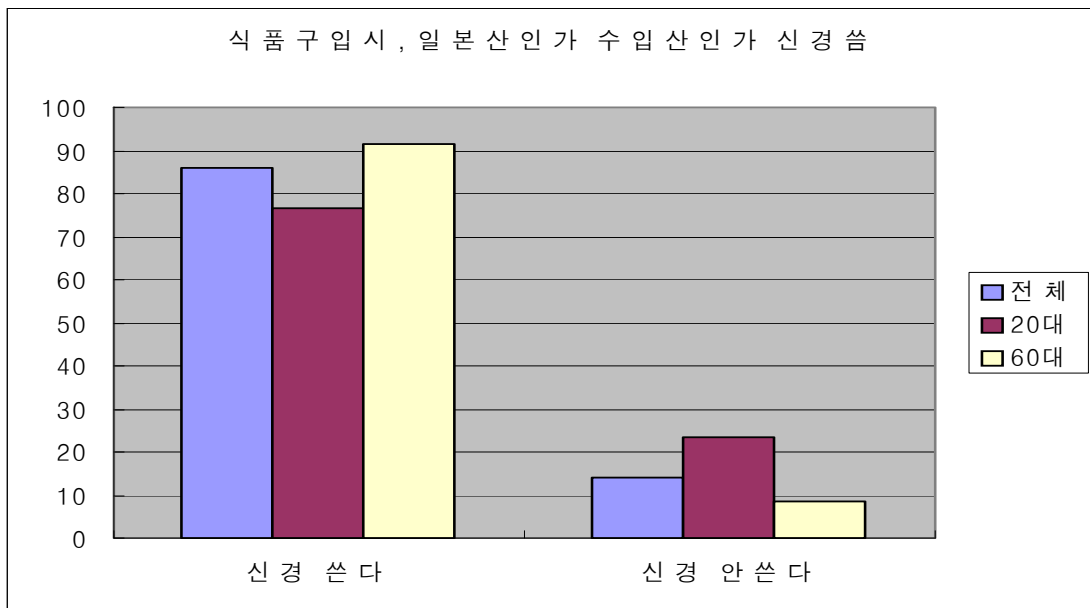
연령	성별	식품에 대한 지향(1번째로 강한 것과 2번째로 강한 것의 합계비율)									
		간편화지향	손수만드는 형	외식지향	경제성지향	고급지향	미식지향	소재지향	건강·안전지향	다이어트지향	국산지향
전체	남성	18.5	40.2	5.1	30.8	2.1	9.8	18.2	7.5	11.2	22.5
	여성	17.8	41.5	4.8	31.2	2.2	10.1	8.2	12.5	21.8	
	20대	25.1	42.8	5.2	48.5	2.5	11.2	10.5	13.8	19.2	
	60대	10.2	45.1	3.1	15.2	2.1	22.5	65.2	9.5	28.1	

□ 식료품 구입시 일본산·수입산에 대한 의식

- 대부분의 주부가 식료품을 구입할 때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그 경향은 고연령 층에서 강함
- 한편, 외식을 할 때는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신경을 쓰지 않는 주부가 절반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경향은 특히 저연령 층에서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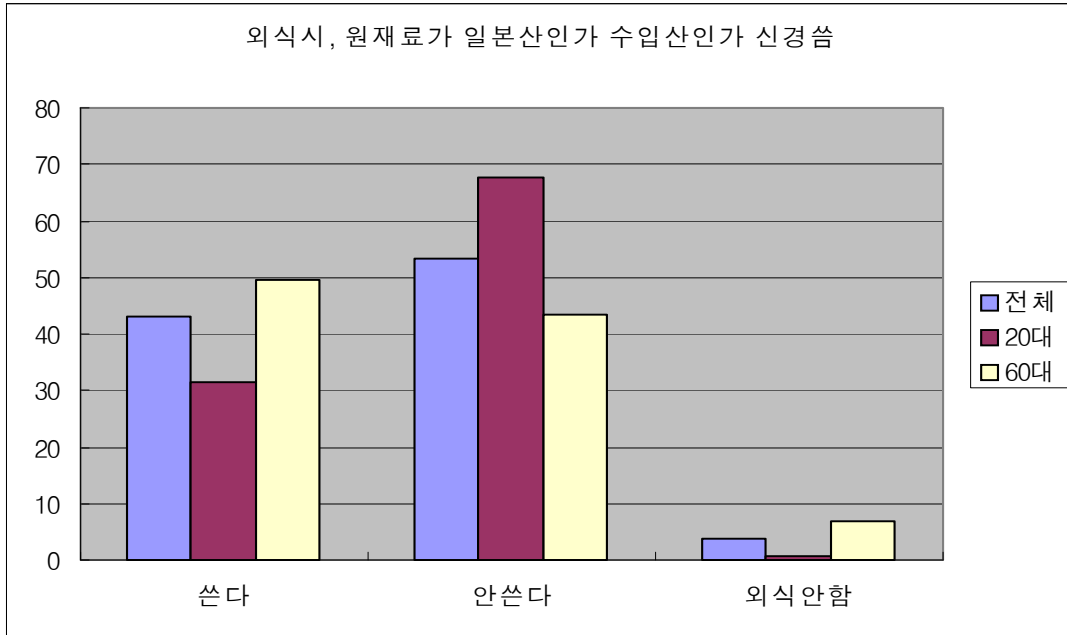
- 85.9%의 주부가 식료품을 구입할 때에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연대별로 보면, 「신경을 쓴다」는 20대가 76.8%인데 비해 60대가 91.5%로 고연령 층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함.
- 한편, 외식할 때는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가 과반수를 초과(53.3%)하고 있으며, 「신경을 쓴다」는 43.1%에 그쳤음.
- 연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가 67.7%로 높으나 60대에서는 43.5%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짐.

- 식품 구입시 일본산·수입산 여부에 대한 관심 여부





- 외식(外食)시 원재료가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에 대한 관심 여부



- 식료품 구입 시 일본산·수입산에 대한 의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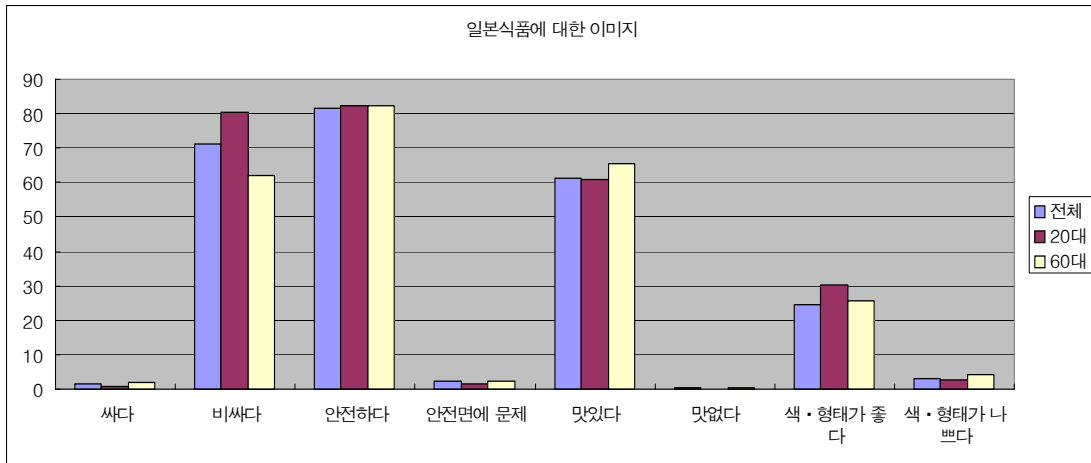
구분	n	신경을 씀 수입산인지 일본산인지 식품구입시에		신경을 씀 수입산인지 일본산인지 원재료가 외식 시에		외식을 안함
		신경을 씀	신경을 쓰지 않음	신경을 씀	신경을 쓰지 않음	
전체	1,000	44	54	4	96	0
성별	남성	44	54	4	96	0
	여성	44	54	4	96	0
연령	20대	32	68	1	99	0
	60대	50	44	7	93	0

□ 일본식품·수입식품에 대한 이미지

1) 일본식품에 대한 이미지

- 일본식품의 이미지는 《안전하다》 《비싸다》 《맛있다》
- 연령층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음

- 일본식품의 이미지는, 「안전하다」가 81.4%로 가장 높고 「비싸다」(71.4%), 「맛있다」(61.3%), 「색·형태가 좋다」(24.6%)의 순으로 나타났음.
- 「비싸다」를 제외하고 연령층에 따른 경향에 커다란 차이는 없음.
  - 일본식품에 대한 이미지



- 국산(일본)식품에 대한 이미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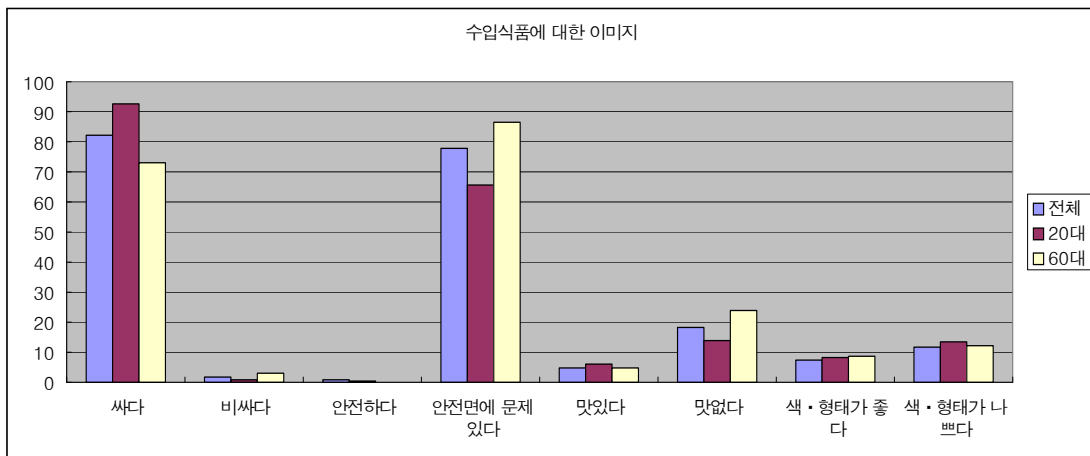
n =		싸다	비싸다	안전하다	안전면에 문제	맛있다	맛없다	색·형태가 좋다	색·형태가 나쁘다
전체	(2,078)	2.1	71.4	81.4	2.5	61.3	1.2	24.6	3.8
연령	10대	1.5	68.2	78.5	1.8	58.1	0.9	22.1	3.2
	20대	1.2	81.2	82.1	1.1	61.5	1.1	30.8	3.2
	30대	2.3	72.5	80.2	2.8	63.4	1.5	25.8	4.5
	40대	1.8	70.1	79.8	2.1	60.2	1.3	23.5	3.8
	50대	2.5	69.8	78.1	2.5	59.5	1.1	22.8	4.2

2) 수입식품에 대한 이미지

- 수입식품 전체의 이미지는, 《싸다》 《안전면에 문제》
- 저연령층의 이미지 1위는 《싸다》, 고연령층의 이미지 1위는 《안전면에 문제》

- 수입식품 전체의 이미지는「싸다」가 82.1%로 가장 높고 「안전면에 문제」가 78.0%로 뒤를 이었으며, 「맛없다」(18.4%), 「색·형태가 나쁘다」(11.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저연령층에서는「싸다」의 이미지가 강하고 고연령층에서는 「안전면에 문제」의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식품에 대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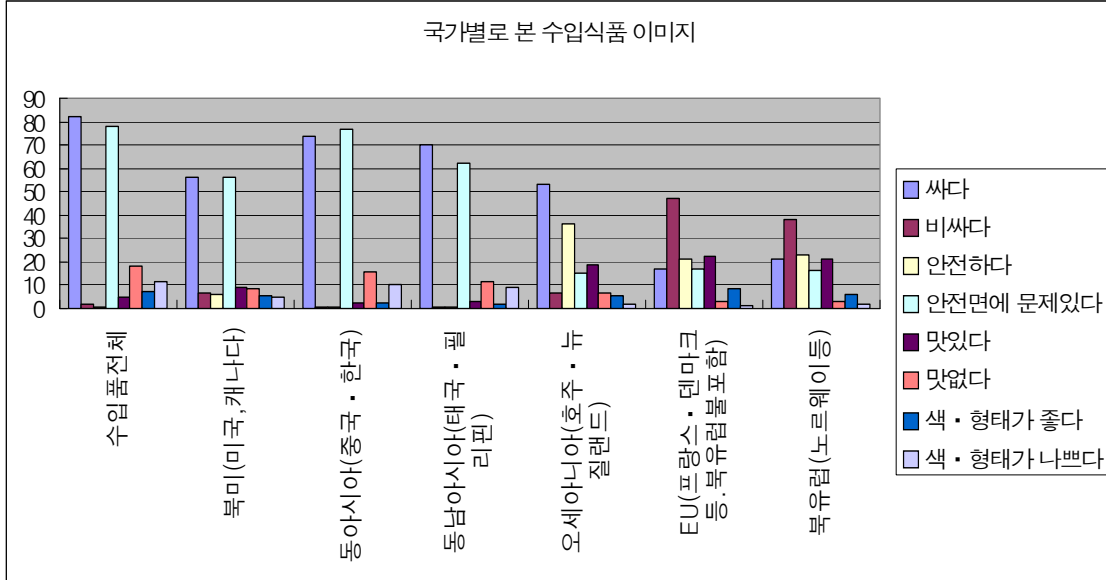
- 수입식품에 대한 이미지

(단위 : %)

n=		싸다	비싸다	안전하다	안전면에 문제 있다	맛있다	맛없다	색·형태가 좋다	색·형태가 나쁘다
전체	1,000명	82.1	2.0	1.0	78.0	5.0	18.4	8.0	11.7
연령	20대	93.0	1.0	1.0	66.0	6.0	14.0	9.0	14.0
	30대	85.0	1.0	1.0	75.0	5.0	15.0	8.0	13.0
	40대	83.0	1.0	1.0	78.0	5.0	16.0	8.0	12.0
	50대	75.0	1.0	1.0	85.0	4.0	18.0	7.0	14.0
	60대	73.0	1.0	1.0	87.0	3.0	24.0	6.0	12.0

- 북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식품의 이미지는 《싸다》 《안전면에 문제》
- 오세아니아의 식품 이미지는 《싸다》 《안전》
- EU(유럽)의 식품의 이미지는 《비싸다》 《맛있다》 《안전》 등

- 국가별로 본 수입식품에 대한 이미지



- 수입식품(국가별)에 대한 이미지

(단위 : %)

	싸다	비싸다	안전하다	안전면에 문제	맛있다	맛없다	색·형태가 좋다	색·형태가 나쁘다
수입품 전체	82.1	1.6	0.8	78.0	4.9	18.4	7.2	11.7
북미(미국, 캐나다)	55.9	6.4	6.1	56.4	8.9	8.4	5.5	4.6
동아시아(중국, 한국)	73.4	0.4	0.4	76.8	2.3	16.0	2.3	10.3
동남아시아(태국, 필리핀)	70.3	0.5	0.4	62.0	3.2	11.5	2.0	8.8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53.3	6.7	36.3	15.1	19.0	6.5	5.6	1.9
EU(프랑스, 덴마크 등/북유럽 제외)	16.7	47.3	21.2	17.2	22.3	2.9	8.6	1.2
북유럽(노르웨이 등)	21.3	38.1	22.8	16.4	21.3	3.1	6.1	1.6

□ 식품 구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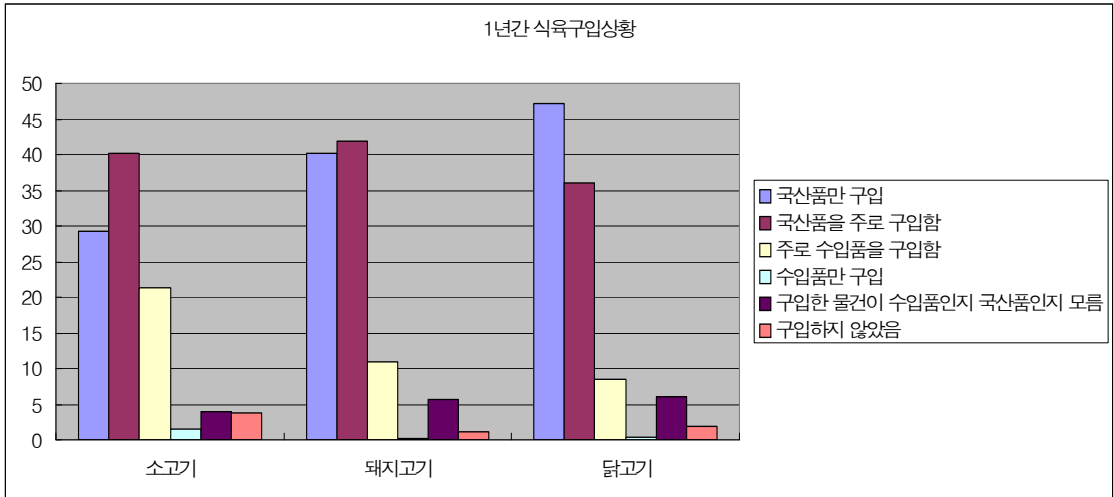
1) 최근 1년간 일본산·수입산의 구입현황

-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신경을 쓰고 구입하는 것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표고버섯》
-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구입하는 것은 《호박》 《양파》 《브로콜리》 《생선토막》 《어패류》 《과실》
- 식육 중에 일본산밖에 구입하지 않았던 비율이 가장 많았던 것은 《닭고기》 일본산밖에 구입하지 않았다고 회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소고기》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식육은 「구입한 것이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몰랐다」라고 회답한 것은 3.9~6.1%로 기타 품목에 비하면 낮았고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의식한 후에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일본산밖에 구입하지 않았다」·「주로 일본산을 구입했다」를 합치면 80%를 초과하여 일본산지향을 엿볼 수 있으나 「소고기」는 70%에 못미치며, 「주로 수입품을 구입했다」비율이 조사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21.3%를 나타내는 등 비교적 수입산도 구입되고 있다는 실태를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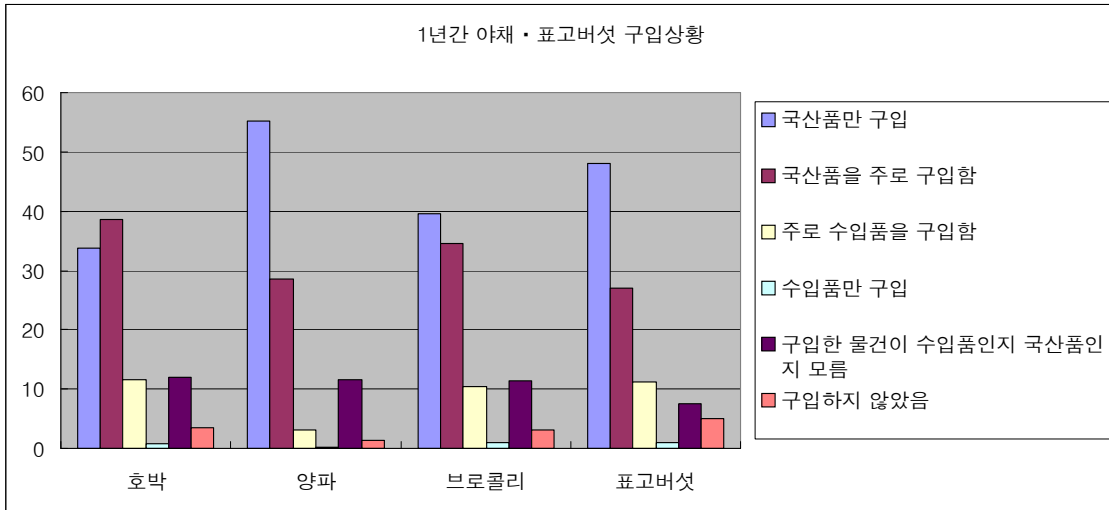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식육의 구입현황



야채(호박, 양파, 브로콜리), 표고버섯

○ 야채는 「구입한 것이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몰랐다」의 비율이 11.3~11.9%로 비교적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의식하지 않고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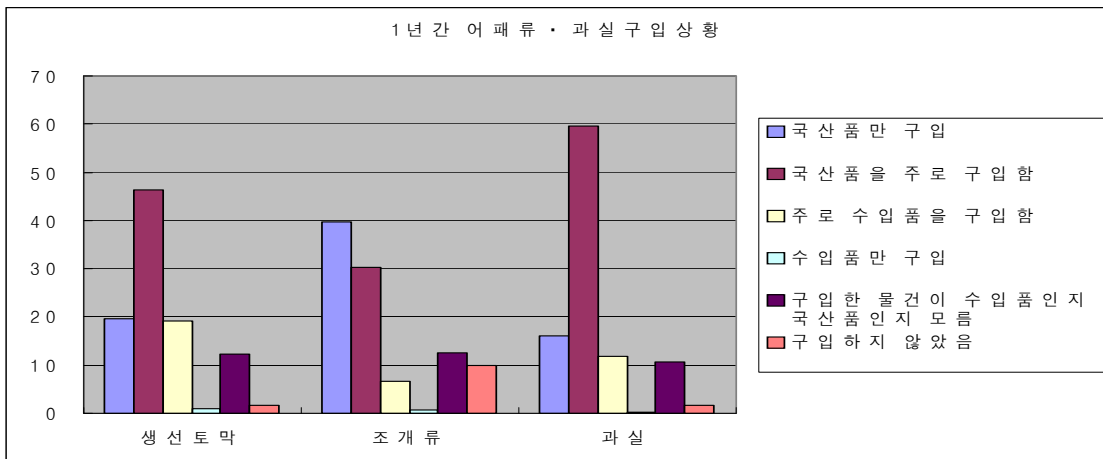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야채·표고버섯의 구입현황



생선토막(연어, 고등어), 조개류(바지락, 재첩), 과일

○ 생선토막·조개류·과실은 「구입한 것이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몰랐다」의 비율이 10.6~12.6%로 비교적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의식하지 않고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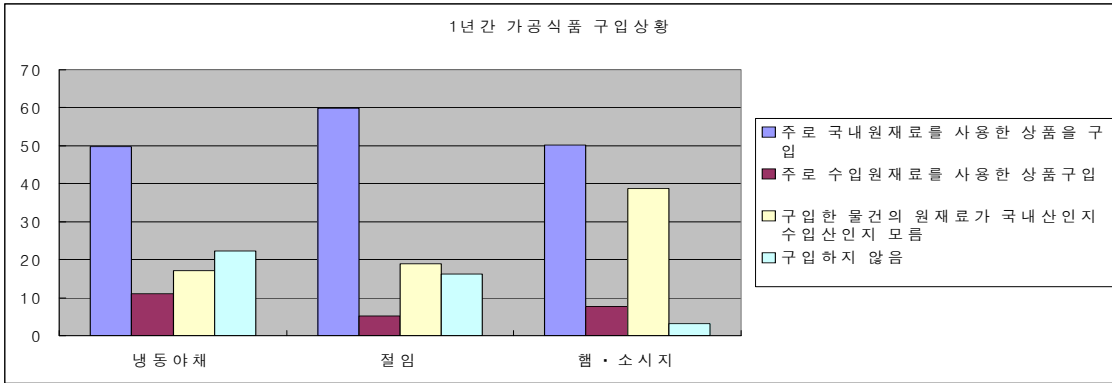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어패류·과실의 구입현황



가공품[냉동야채(시금치, 가지꽃콩 등), 절임, 햄·소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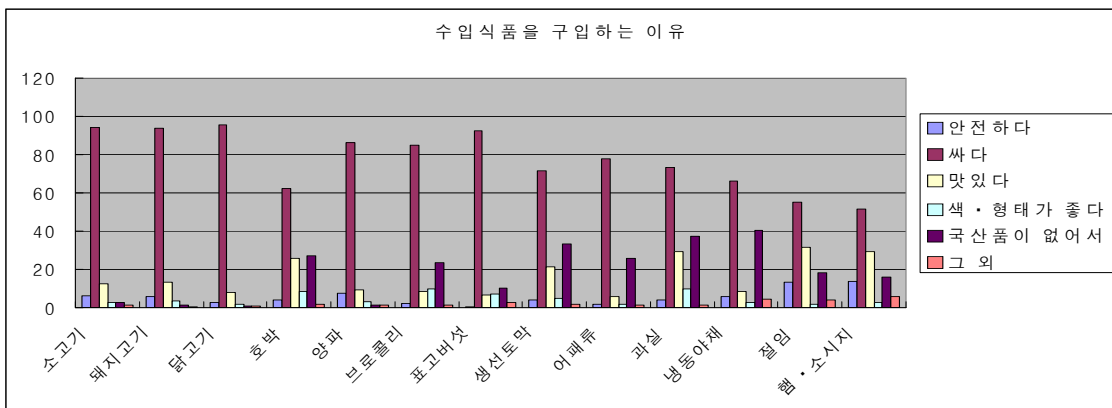
- 햄·소시지는「주로 일본원재료를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구입했다」가 50.3%로 가장 많았으나 「구입한 물건의 원재료가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몰랐다」도 38.8%를 나타내어 냉동야채와 절임에 비하면 원재료가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의식하지 않고 구입한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1년간 가공식품의 구입현황



2) 수입식품을 구입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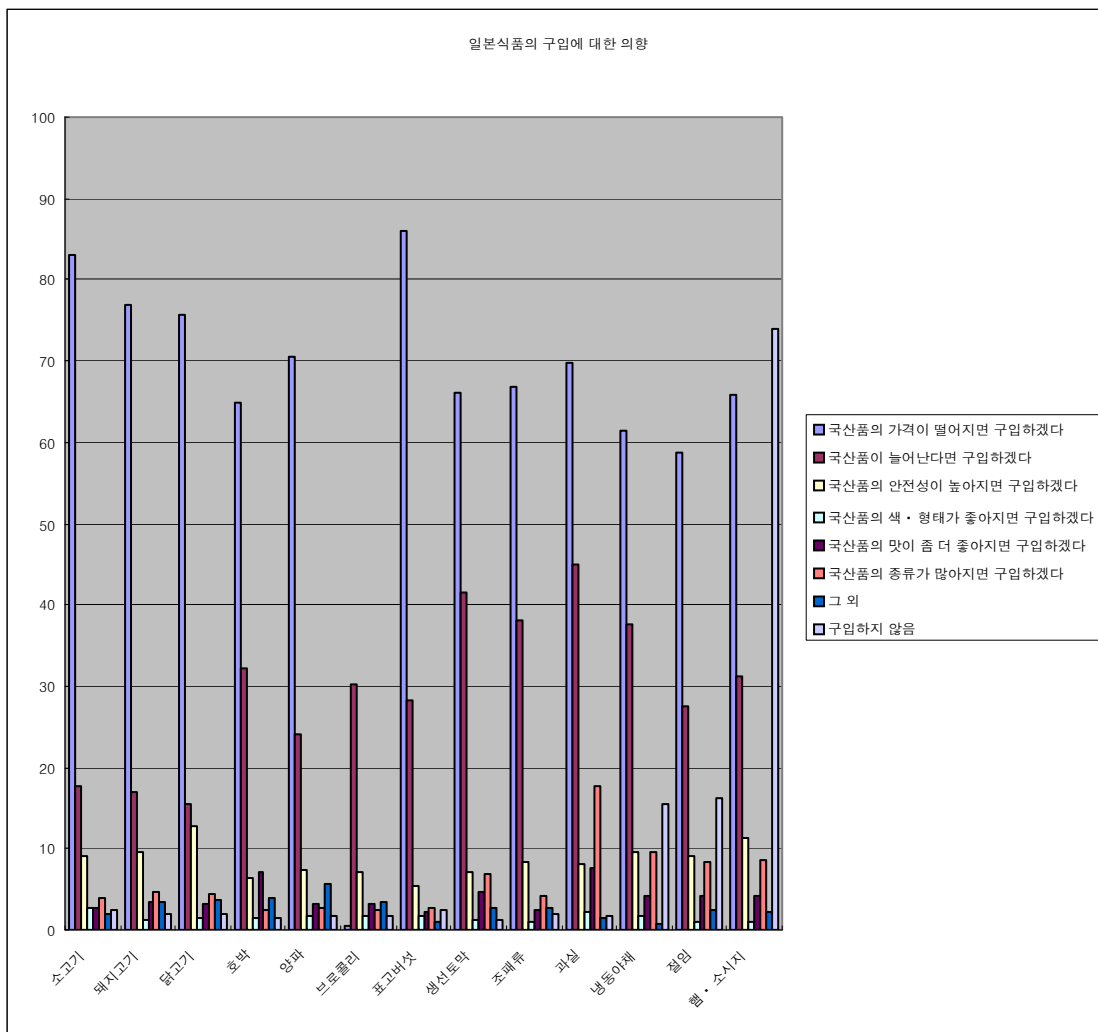
- 수입식품을 구입한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싸기 때문에》 특히 그 비율이 높은 것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표고버섯》
- 《국산품(국내원재료를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회답이 많았던 것은 《호박》 《생선토마》 《과실》 《냉동야채》
- 《맛있기 때문에》라고 회답이 많았던 것은 《과실》 《절임》 《햄·소시지》
- 《안전하기 때문에》라는 회답이 10%를 초과한 것은 《절임》 《햄·소시지》



## □ 일본식품 구입상황

- 품목에 상관없이 《가격이 떨어지면 늘리고 싶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좀더 유통량이 많아지면 늘리고 싶다》
- 《식육》은 일본산과 수입산의 가격차,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좀더 유통량이 많아지면 늘리고 싶다》의 응답이 적었음
- 한편, 《좀더 유통량이 많아지면 늘리고 싶다》의 응답이 많았던 것은 《과실》 《생선토막》

### ○ 일본식품의 구입에 대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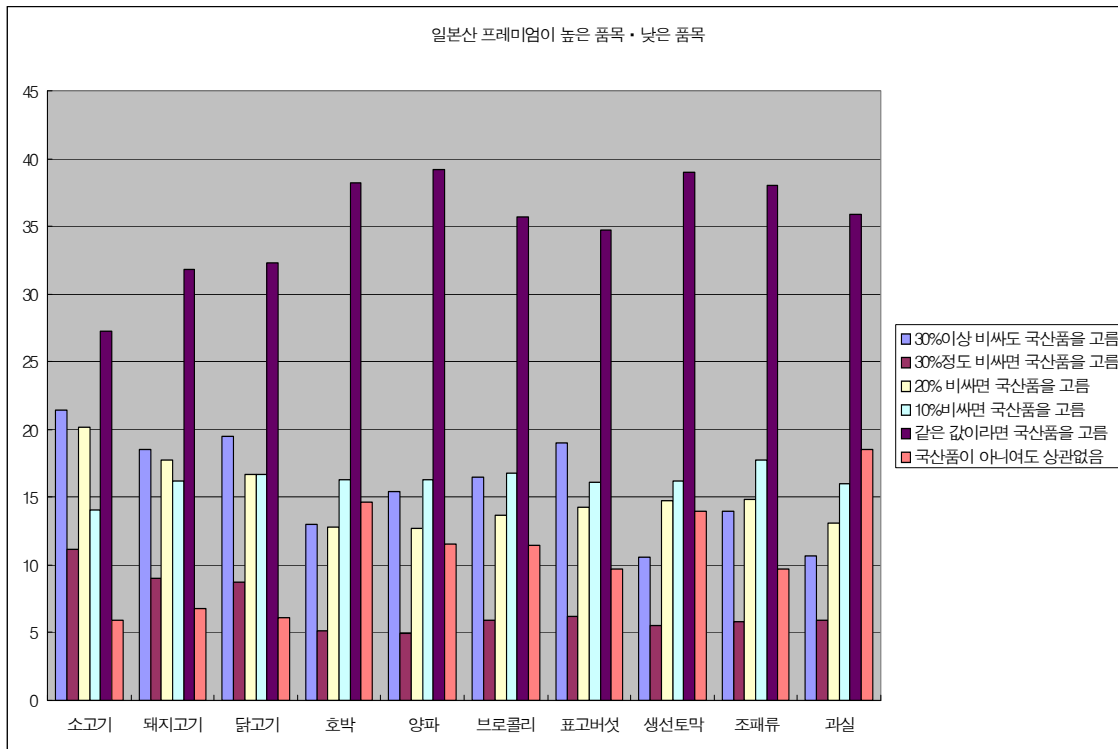




□ 일본산 프리미엄이 높은 품목 · 낮은 품목

- 《30% 이상 높아도 일본산을 고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품목을 일본산 프리미엄 (일본산과 수입품의 가격차를 메우는 품질의 차)이 높은 품목으로 한 경우, 가장 프리미엄이 높았던 것은 《소고기》(21.4%)  
다음으로 《닭고기》(19.5%), 《표고버섯》(19.0%), 《돼지고기》(18.5%)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일본산과 상관없다》라고 회답비율이 높은 품목을 일본산 프리미엄이 낮은 품목으로 한 경우, 가장 프리미엄이 낮았던 것은 《과실》(18.5%) 다음으로 《호박》(14.6%), 《생선포막》(14.0%), 《양파》(11.5%), 《브로콜리》(11.4%)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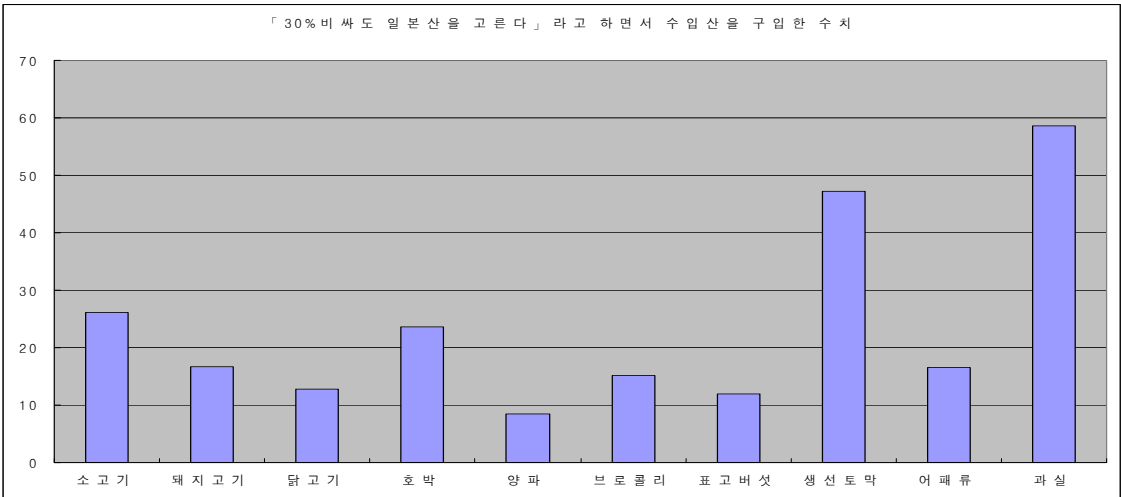
○ 일본산 프리미엄이 높은 품목 · 낮은 품목



□ 일본식품 구입의욕의 높기와 실제 소비행동과의 차이가 큰 품목

○ 《30% 이상 높아도 일본산을 고름》라고 응답을 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도 구입한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과실》(58.6%)이었으며, 다음으로 《생선토막》(47.2%)이었음. 이유로서는 일본식품의 구입의욕은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일본산이 적어 실제의 소비단계에서는 수입산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30% 비싸도 일본산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서 수입산을 구입한 비율



○ □□30% 비싸도 일본산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서 수입산을 구입한 비율

(단위 : %)

	n=	(1) 일본산 밖에 구입하지 않았다	(2) 주로 일본산을 구입했다 (일본산이 많음)	(3) 주로 수입산을 구입했다 (수입산이 많음)	(4) 수입산만 구입했다	(5) 구입하지 않거나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모른다	(6) 구입하지 않았다	(2)+(3)+(4) 수입산 구입했다
소고기	(444)	70.9	25.0	1.1	0.0	0.2	2.7	26.1
돼지고기	(384)	82.6	16.7	0.0	0.0	0.3	0.5	16.7
닭고기								
호박								
양파								
브로콜리	(343)	83.1	14.6	0.3	0.3	0.3	1.5	15.2
표고버섯	(395)	87.1	11.4	0.5	0.0	0.0	1.0	11.9
생선토막	(220)	47.7	44.5	2.7	0.0	3.6	1.4	47.2
어패류	(290)	73.8	16.2	0.3	0.0	3.8	5.9	16.5
과실	(222)	40.1	55.9	2.7	0.0	1.4	0.0	58.6

## □ 종합

- 일본식품의 이미지는 《안전하다》 《비싸다》 《맛있다》
- 수입식품의 이미지는 《싸다》 《안전성에 문제》
- 호주식품의 이미지는 《싸다》 《안전하다》
- 한국(중국)식품의 이미지는 《안전성에 문제》 《싸다》

- 이상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구매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주부의 86%가 식품을 구입할 때 일본산인지 수입산인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 중 한국식품은 중국식품과 함께 일본식품과는 대조되는 안전성에 문제(76.8%), 싸다(73.4%)의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현지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 의견

- 현재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최근 각 품목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인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들에게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를 청취한 결과 일반 소비자와는 다른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음.

- 한국식품의 이미지는 《맛있다》 《싸다》 《맵다》
- 한국산 김치의 이미지는 《싸다》 《위생적이다》 《본고장의 맛》
- 한국농산물의 이미지는 《비싸다》 《레벨이 높다》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
- 한국산 파프리카의 이미지는 《품질이 높다》 《비싸다》

주) 위의 자료는 각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 5명에 대한 청취조사임.

- 위의 조사에서는 한국식품의 이미지는 불고기, 지짐이, 찌개 등을 연상하게 하여 《맛있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싸다》는 의견임.
- 특히 한국식품은 김치, 고춧가루, 김치찌개, 신라면 등을 연상하게 하여 《맵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김치는 《싸다》 《위생적이다》 《본고장의 맛》 순을 나타냈음.
- 한국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는 《비싸다》 《레벨이 높다》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 순을 나타냈으며, 일본농산물과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다가 많았으며, 재배기술 향상으로 레벨이 높고 까다로운 일본 검역에 외국산 중에서는 안전성이 점점 높아지

고 있다는 회답이 많았음. 또한, 파프리카는 외국산의 싼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한국산이 비싸다는 이미지이나, 품질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처럼 일본 소비자들은 외국산 특히, 중국산에서 최근 잔류농약과 이물질 혼입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매스컴 등의 보도에 따라 한국산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의 청취조사에서는 안전성 및 위생면에서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4. 결 론

-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고품질의 고급이미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홍보부족을 엿볼 수 있어 안전성 및 위생적인 면에 대한 일본소비자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